

불기2558(201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는 오는 5월 6일(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표어로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로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 봉축 표어는 “동제대비의 사회적 실천과 자비나눔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갈수록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외된 이웃들이 많아지는 이때 ‘이웃과 사회를 향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4월 16일(수)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간 서울 조계사 우정국로와 종로 일대에서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그 외 각 지역과 사찰에서 다양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진행된다.

2014부산연등축제 조직위원회 결성법회

2월 27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사부대중 500여명 동참



▲ 2014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 결성법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는 2월27일 오후5시 코모도호텔에서 '2014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 결성법회'를 봉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결성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수불스님, 수석 부회장 무원스님(삼광사 주지), 상임부회장 효원정사(진각종 부산교구청장),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김은숙 중구청장 등을 비롯해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했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부산 시민에게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란 기조 아래 올해 부산연등축제를 진행한다.

2014부산연등축제의 본 행사는 4월 18일 영두산 공원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10일간 이어진다. 연등축제 세미나및 강습회, 부산연등문화제, 연등행렬 등 크게 3대 영역으로 나눠 진행될 부산연등축제는 결성법회 후에도 △행렬등 2차 강습회및 실무자 회의 △부산연등축제 보존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 △대형장엄등 전시회 △전통문화체험한마당 △ 봉축연합대법회 △연등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로 시민과 만나게 된다.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심산스님(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은 “불자들의 원력과 시민들의 동참을 통해 부산연등축제가 부산광역시 10대 축제로 선정 되고,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정각사 = 김윤경 통신원

인터넷 총지정보 www.chongjinews.com

‘한국불교 태고종 발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

화합과 단결 이뤄 태고종의 새로운 위상 높이겠다.



도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도산스님) 100만 서명운동 추진 위 (공 동 위 원 장 중 앙 포교원장 지현, 정경조 전국신도 회장)는 2월 19일 오후 4시 법륜사 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강당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발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격려사에서 “100만 서명 운동은 한국불교 태고종도의 애종심 고양과 화합 단결과 부처님의 정법이 구현되기 위한 운동 이다”며 “태고종의 발전을 위하여 전 종도들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전 종도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날까지 온 힘을 쏟아 전 종도들과 함께해 화합과 단결을 이루겠다”며 “어두운 곳에 등불을 밝히고 태고종도로서의 자부심과 애종심을 발현하는 기회로 삼아 태고종의 새로운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태고종은 이번 100만 서명운동의 목적은 △한국불교 태고종 종지와 종풍을 받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발전 △발원기금을 확보하여 삼보호지/ 포교활동/ 불교지도자 양성/ 한국불교 태고종 전통문화 계승 사업과 사회봉사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부처님의 정법 구현 △애종심을 고취 △화합과 단결 도모 △새로운 위상 제고를 실현해 한국불교 태고종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 서명운동 기간은 2014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태고종도·기업·신행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과 사찰별 현금 접수, 은행권과 입금, ARS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모금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불기2558년 신년 기자회견 교구장 정우스님 "올해 노후화된 군법당 불사에 속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노후화된 군법당 불사에 속도를 내고, 7월에 비구니 군승장교를 처음 배출하는 등 군 포교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신년계획에서 밝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2월 26일 서울 호국 원광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군부대 시설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논산 호국연무사를 건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방 격오지의 노후화된 부대 법당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 보수하는 것이 올해의 시급한 과제다.”며 “신교대의 이전으로 법당이 없어 가건물을 법당으로 쓰는 곳이 많은 것은 물론 격오지의 경우도 조립식 막사를 법당으로 이용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군장병의 56%가 교육을 받는 각 부대 신병교육대에 법당이 없는 곳이 있다”며 “낙후된 군법당을 개보수하기 위해 군종교구는 불사를 위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

고 신축사찰 표준설계안을 작성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우 스님은 "오는 7월에 배출되는 14명의 군승장교 가운데 여성 성직자인 비구니 군승장교가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국방부에 파송될 것”이라며 "내년이면 출범 10년째를 맞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군 포교 네트워크 구축, 예비군승 교육 강화 등 체계화된 포교전략을 통해 올해부터 군장병 불자를 곱절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돈만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16억 원 중, 종단지원금은 2억 5000만원에 불과해 어려움이 있다”며 “포교원과도 연계해 장병들이 전역 후 일선 사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1사찰 1군법당 연계 및 사찰 지도방문 등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선재의 선물 ‘책가방’ 전달식

2월 6일(목)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는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선재의 선물(책가방)’ 전달식이 있었다.

아름다운동행이 후원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선물들은 도서와 학용품이 가득 담겨있는 책가방을 전국 206개 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아 선정한 508명의 취약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전달식에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덕담과 함께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직접 책가방을 걸어주며 첫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했다.

가방 전달식에 앞서 아름다운동행 지원단은 선물포장을 함께 도왔으며, 회원 108명이 5만원씩 정성을 모아 마련한 540만원을 선재의 선물 기금으로 전달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개 천 사	이 희 권	2/3	10,000
개 천 사	무 명 씨	2/10	100,000
개 천 사	강 순 시	2/17	10,000
개 천 사	이 희 권	2/25	10,000
관 성 사	황 성 녀	1/29	10,000
관 성 사	인 선	2/24	20,000
관 음 사	허 경 우	2/6	30,000
관 음 사	신 막 심	2/6	20,000
관 음 사	박 해 진	2/6	20,000
관 음 사	박 치 영	2/19	10,000
기 로 대 관		2/24	10,000
기 로 대 자 행		2/24	10,000
기 로 밀 공 정		2/24	10,000
기 로 법 수 원		2/24	10,000
기 로 법 장 화		2/24	10,000
기 로 법 지 원		2/24	10,000
기 로 불 멸 심		2/24	10,000
기 로 사 흥 화		2/24	10,000
기 로 상 지 화		2/24	10,000
기 로 수 증 원		2/24	10,000

기 로 총 지 화	2/24	10,000
단 음 사 법 연 지	2/11	10,000
만 보 사 정 덕 순	1/28	10,000
밀 인 사 정 정 희	1/29	5,000
밀 인 사 이 재 갑	2/10	20,000
밀 인 사 무 명 씨	2/24	10,000
벽 룡 사 무 명 씨	2/5	10,000
벽 룡 사 무 명 씨	2/5	10,000
벽 룡 사 양 정 현	2/5	10,000
벽 룡 사 양 지 현	2/5	10,000
벽 룡 사 양 지 현	2/13	10,000
삼 밀 사 하 명 순	2/17	10,000
선 립 사 수 정	2/3	20,000
선 립 사 심 지 장	2/17	10,000
선 립 사 수 정	2/24	20,000
성 화 사 우담바라회	2/19	70,000
수 인 사 김 봉 기	1/28	10,000
수 인 사 무 명 씨	2/5	20,000
수 인 사 김 봉 기	2/26	10,000
승 천 사 원 봉	2/13	10,000

승 천 사 지 선 행	2/13	10,000
실 보 사 이 순 복	1/27	10,000
실 지 사 정 경 자	1/27	10,000
실 지 사 정 경 자	2/26	10,000
일원어린이집		
김 지 영	1/27	10,000
최 복 란	1/27	10,000
하 재 희	1/27	30,000
이 준 동	1/27	10,000
하 미 영	1/27	10,000
김 지 연	1/27	10,000
이 지 민	1/27	10,000
서 선 숙	1/28	10,000
구 미 자	2/3	10,000
이 준 동	2/25	10,000
김 지 연	2/25	10,000
김 지 영	2/25	10,000
하 재 희	2/26	30,000
하 미 영	2/26	10,000
이 지 민	2/26	10,000

지 인 사 승 효 제	2/13	10,000
지 인 사 지 성 인	2/13	10,000
지 인 사 허 성 동	2/17	30,000
초록어린이집		
황 화 성	1/27	30,000
오 현 주	2/3	10,000
이 은 주	2/22	10,000
황 화 성	2/25	30,000
이 상 은	2/25	10,000
총 지 사 법 등	2/3	30,000
해 정 사 박 순 희	2/4	10,000
흥 국 사 지 정	2/13	20,000
김 갑 선	2/19	10,000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27

사념처 수행

관 십이 처 (觀 十 二 處)

육근과 육경의 접촉에서 번뇌가 일어나
관 십이 처는 법념처 수행의 핵심

화 령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관십이처는 우리의 감각기관인 육근과 그 대상인 육경을 관하여 육근과 육경이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번뇌를 관찰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십이처라는 것은 일체법을 감각과 지각의 인식 위에서 고찰하여 인식의 주관적 능력으로서의 육내입처(六內入處)와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육외입처(六外入處)의 12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주관적 능력으로서의 육내입처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안(眼;눈) · 이(耳;귀) · 비(鼻;코) · 설(舌;혀) · 신(身;몸) · 의(意;마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을 육근(六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육외입처는 우리가 바깥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서의 색(色;색깔과 모양) · 성(聲;소리) · 향(香;냄새) · 미(味;맛) · 촉(觸;촉감) · 법(法;인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의 여섯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을 육경(六境) 혹은 육진(六塵)이라고도 한다.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번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십팔계는 앞에서 말한 십이처에 감각과 지각을 인식하는 그 자체로서의 육식(六識), 즉 안식(眼識) · 이식(耳識) · 비식(鼻識) · 설식(舌識) · 신식(身識) · 의식(意識)의 여섯 가지 인식을 더하여 18가지로 나눈 것이다. 감각과 지각을 인식하는 그 자체는 각각의 감각과 지각을 인식하는 인식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여섯 가지라는 것이다. 이처럼 육근, 육경, 육식을 합하여 18가지의 경계, 즉 십팔계라고 부른다.

불교에서는 일체를 삼과(三科)라고 하여 오온과 십이처, 십팔계로 구분하는데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본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 앞에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일체법을 말하는 것이다. 즉, 모든 존재는 이 삼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도의 외도들이나 서양철학 등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본체라든가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성 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세계’라고 부르고 ‘일체’라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각과 지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의 감각이나 지각으로 인식되는 현상계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구히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나 본체는 설령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우리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면 그것의 존재여부는 우리의 판단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입증될 수가 없다.

또한 그러한 본체나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수행이나 깨달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오온, 십이처, 십팔계라는 우리의 인식세계를 통하여 일체법을 설명하고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상계뿐인 것이다.

연기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유위법(有爲法)이라고 한다. 이것을 행(行)이라고도 한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할 때의 행이다. 우리는 이 유위법,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상계 속에서 생멸변화하며 괴로워하고 기빠하고 집착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현상계 이외에는 어떠한 세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체의 현상계를 불교에서는 일체라든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오온, 십이처, 십팔계를 일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듣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없으면 보거나 들을 수 없다. 또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하여도 눈이나 귀라는 기관이 없으면 그러한 대상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 또 눈과 보이는 것이 있고 귀와 들리는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파악하는 인식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눈과 귀가 있어도 인식주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못한다. 우리가 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서 어떤 대상을 본다고 할 때에 눈과 대상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눈을 통하여 망막에 비친 것을 시신경을 통하여 인식하는 작용이 없으면 눈이든 망막에 비친 물질이든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

듣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귀가 있어 어떤 소리가 고막에 울려 퍼져도 그것을 인식하는 이식(耳識)이 없으면 그 소리는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 인식을 하는 기관, 그리고 인식하는 그 자체 가운데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삼과에서는 인식의 대상을 경이라고 하고 인식기관을 근이라고 하며 인식 그 자체를 식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러한 근과 경과 식이 동시에 어우러져야 우리에게 비로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근 · 경 · 식의 삼사화합(三事和合)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어우러지는 삼사화합의 순간을 촉(觸)이라고 한다. 그 촉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고 하는 감수 작용이 생긴다. 거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이 잇따라 일어나고 종합적인 판단이 서게 되며 그로부터 우리의 기쁨과 괴로움 등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 · 경 · 식의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게 되면 우리에게 현상세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눈이 장애인 사람은 눈의 세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귀가 장

애인 사람은 소리의 세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근과 경과 식의 세 요소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삼사화합에 의하여 보는 세계, 듣는 세계, 냄새의 세계, 맛의 세계, 촉각의 세계, 또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종합적인 생각의 세계가 나타나 우리에게 현상으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세계의 원리를 설명한 이 삼과를 일체 혹은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육근과 육경의 진상을 보지 못하여 번뇌가 발생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의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문제는 근과 경의 접촉과정에서 인식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결박하여 괴로움을 만든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중생은 육내처와 육외처의 진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대상과 접촉하는 순간 욕염(慾染)이라는 것이 생긴다. 우리를 번뇌에 들게 하여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은 육근도 아니고 육경[육진]도 아니다. 육내처와 육외처가 서로 접촉하는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염 때문이다.

예를 들면 꽃을 보면 그냥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말면 그 뿐이지만 그 꽃을 꺾어 자기 집 화병에 꽂아놓아두고 싶다는 식으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우리를 속박하여 가지지 못하면 안달하고 가지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미워하고 성내며 끝없는 번뇌의 고리를 만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결박’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심신을 속박하여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며 해탈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육근과 육경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탐욕이
십결을 일으킨다

우리를 번뇌에 묶어매는 결박을 《대념처경》의 주석서에서는 열 가지로 구분한다. 이것을 ‘십결(十結)’ 혹은 ‘십결박(十結縛)’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 ①탐결(貪結): 좋아하는 것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욕심
- ②진결(瞋結): 싫어하는 것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화나는 마음
- ③만결(慢結): 나뭇잎에 없다는 오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만 결이 생긴다
- ④견결(見結):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하여 사견(邪見)을

내어 상 · 락 · 아 · 정(常 · 樂 · 我 · 淨;변하지 않고 즐거운 것이며 실체가 있고 번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⑤의결(疑結): 어떤 사물에 접촉할 때에 거기에 감정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 예를 들면, 오래된 물건에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는 것 등.

⑥계금결(戒禁結): 사전에 의하여 어떤 의식이나 의례 등을 해탈이나 깨달음의 방법으로 잘못 알고 행하는 것. 예를 들면 짐승의 흉내를 낸다거나 이상한 물건에 기도하거나 잘못된 수행방법을 행하는 미신 등에 집착하는 것

⑦유애결(有愛結): 좋아하는 것에 탐착하여 미래에는 더 좋은 상태로 태어나 그러한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⑧질투결(嫉妬結): 타인의 성공이나 재산, 명예 등에 대해 질투하는 것

⑨간인결(慳吝結): 자기의 것이 아까워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10)무명결(無明結): 무명결은 다른 번뇌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서 진리에 눈뜨지 못한 것

십결은 단독으로 일어날 수 없고 반드시 상응하는 심과 심소와 함께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근과 색진의 접촉과정을 명백히 관찰해야 하며 이 둘의 접촉에 의하여 일어나는 번뇌를 살펴 그 일어나는 과정과 말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 관십이입처의 목적이다.

눈이 어떤 것을 보았을 때는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보는 대상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근과 육진의 접촉에 의해 생기게 되는 번뇌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초과인 수다원과를 얻게 되면 견결 · 의결 · 계금결 · 질투결 · 간인결의 5가지 결박을 끊을 수 있다고 한다. 제이과인 사다함과를 얻으면 현저한 탐결과 진결을 끊게 되면 제삼과인 아나함과를 얻게 되면 미세하게 남아있는 탐결과 진결을 끊을 수 있다고 한다. 제사과인 아라함과를 얻게 되면 만결과 유애결, 그리고 무명결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관십이입처는 육근과 육경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번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면밀히 관찰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념처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생활불교
재가불교

화령 지음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생활불교
재가불교

승속을 초월한 살아 있는 불교를 위하여...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 불교로서 불교를 수행한다는 것은 오직의 출가와 재가라는 형식에 얽매지 않고 승영들과 더불어 살면서 진리를 깨닫아가는 숭고한 불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흙탕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오지미 그 아름다운 과 향기로운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 주는 연꽃처럼 재가불자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불교총지중

화령 지 | 불교총지중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사가 6,000원 (10권 이상)



<밀교연구>

밀교계 오방, 오불.



벽룡사 주교
법일 정사

오방불의 명칭과 방위.

경전명	중앙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다라니집경』	석가불, 일체불정	아촉	보살	아미타	미묘성
『불공견삭신변가지경』	석가모니, 비로자나	아촉	보생(여원인)	아미타(성정인)	세간왕
『일자불정운왕경』	석가모니	아촉	보생	관자재왕	불공성취
『대일경』 권1	대일	보성	개부연화왕	무량광(정인)	아촉(시무외인)
『대일경』 권5	일체세간최승특신	보당	대근용	무량수	부동
『대일경소』	대일	보당	개부화왕	무량수	고음
『초회금강정경』 권9	비로자나	보당	사리수왕화개부	무량수	부동(고음)
『초회금강정경』 권46	비로자나	아촉	보생	관자재	불공성취
『금강정유가삼십칠존출생의』	비로자나	아촉	보생	아미타	불공성취
『금강정유가중략출염송경』	비로자나	아촉 상좌(象座)	보생 마좌(馬座)	아미타 공작좌(孔雀座)	불공성취 가루라좌 (迦樓羅座)
『금강정유가약삼십칠존심요』	비로자나	아촉	보생(마니보주)	아미타(묘관찰지인)	불공성취불
『일체여래대비밀왕미증유착상미묘대만나리경』	비로자나(최상보리)	아촉 (축지인)	보생(시원인)	아미타(정인)	불공성취 (시무외인)
『불정존승심파지옥전업장출삼계』	비로자나, 대일여래	아촉	보생	아미타불, 무량수	불공성취, 석가모니

중단에서는 49일 불공중에는 나라불공을 한다. 이때 만다라관을 할 때 오방의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른다. 북쪽을 향하여 정좌하고 “중앙에 비로자나불, 동방에 아촉불, 남방에 보생불, 서방에 아미타불, 북방에 불공성취불을 관하고...”

이는 『금강정경』 계통의 5불에 의거한 중기밀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9세기 이후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시대의 불교문화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위치한 사면석주에 조각된 오방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방 보생불은 우리나라 불교 조각으로는 처음 등장하는 유일한 예로서 중기밀교의 수용과 함께 통일신라 밀교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2009.)

우리나라에서는 잡밀계통의 중국밀교를 삼국시대부터 수용하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의 밀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신라에서는 7세기 초부터 잡밀계통이 전래되었고, 8세기에 접어들면서 순밀계통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밀교는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민중신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라에 최초로 밀교를 전한 승려로 안홍(安弘, 600년 진평왕 22년)은 중국승려 두 사람과 함께 귀국하여 황룡사(黃龍寺)에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梅檀香火光妙女經)』을 번역하고 640년(선덕여왕 9년) 만선도량을 베풀었다.

비슷한 시기의 명랑(明朗)은 632년 당나라로 가서 3년 동안 밀교를 공부하고 귀국하여 자신의 집을 금광사(金光寺)로 고쳐 이곳을 중심으로 밀교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오방불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8세기 초에 번역된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과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罽索神變眞言經)』, 『일자불정운왕경(一字佛頂輪王經)』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밀교경전을 가지고온 신라승려 명효(明曉, 700년 당에서 귀국, 혜통계통의 밀교를 전성한 것으로 추정)는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에 의하면 “천후(天后)시대 성력(聖曆) 3년(700) 경자(庚子) 3월에 신라국 승려 명효가 멀리 당나라 법화(法化)를 관찰하고 돌아가려 할 때 그는 총지문(總持門)에 대해 오래 전부터 마음을 두었던 터라 마침내 저 변두리 나라 사람들도 다같이 이런 비밀한 교의를 듣게 하기 위하여 이 진언을 번역하여 주기를 은근히 청하자 이에 무첨(無諂)은 불수기사(佛授記寺)의 변경원(轉經院)에서 『불공견삭다라니경』 1부를 번역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명효가 8세기 초 신라로 귀국할 때 총지종에 뜻을 두고 이무첨이 번역한 『불공견삭다라니경』을 비롯한 진언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8세기 초에 오방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불교의 도상과 경전이 전해지기는 했으나 그 도상과 수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초기형태의 오방불도 나타나고 있다.

오방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삼국유사에 신문왕의 태자인 보천(寶川, 687)과 효명태자(孝明太子)가 오대산에 올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5개의 봉우리가 각각 불, 보살의 전신이 나타났다고 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보천태자가 임종할 때 후일 국가를 도울 행사를 설하였다는 내용 중에는 오대(五臺)에 관음, 미타, 지장, 석가, 비로자나불, 문수 등의 불, 보살 외에 오행사상(五行思想)에서 나온 청, 적, 백, 흑, 황의 5색과 구체적인 경전이 기록되어 있어 좀 더 발전된 밀교만다라의 구조를 보여준다.

보천태자 말년에 이르러 중대의 진여원(眞如院)에 황색의 비로자나불을 두고 사방에 관음, 지장, 미타, 석가와 36화형(化形)을 배치한 것은 오대산 신앙이 수용된

후 체계화되면서 만다라화된 형태로 늦어도 8세기 초에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윤길, 『신라의 밀교사상』, 한국철학연구 9집, 1979)

오대산 신앙은 중국 산서성 태원시 오대현에 있는 오대산을 남북조시대 이래 문수보살의 진신처로 믿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신앙이 발전 전개되어 가는 과정에서 밀교의 금강계 만다라의 영향을 받은 문수신앙과 고대 산악승배 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불공삼장은 오대산 신앙에 밀교적 교의를 더하여 오대를 금강계 만다라 체계에 의거하여 5지(五智), 5안(五眼), 5승(五乘), 5음(五陰)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로운 변용을 가져왔다.

참고자료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학연문화사, 2009).

법장원 김종인 연구원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애팔라치안 주립대학
아시아학과 초청강연



▲ 애플라치안 아시아학과에서 특별강연을 하는 김종인 박사

법장원 연구원은 보경 김종인 교수는 2월 1일~10일 동안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소재 애플라치안 주립대학 (Appalachian State University)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애플라치안 주립대학 아시아학과와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애플라치안 주립대학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학교였으나, 이번 초청을 주도한 부총장 등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보직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김종인 교수의 초청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김종인 교수의 국제제가불교포럼과 기타 불교계 국제 학술대회 조직 활동에 주목한 애플라치안 주립대학 측이 2012년 초부터 초청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학사일정 등이 맞지 않아 미루어지다가 이번 1월에 방문이 성사되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종인 교수는 “불교계의 국제적 교류, 불교와 사회정의” “한국 대중문화” “한국의 정치변화와 불교” 등 다수의 특별 강연을 하였다. “불교계의 국제적 교류, 불교와 사회정의”에는 많은 청중들이 강연장을 가득 매워 성황을 이루었다. 김종인 교수는 불교계 주요 국제교류 단체들의 활동에 대비해 총지종에서 시작한 국제제가불교 포럼에 대해 소개하여 청중들로 하여 청중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또 베트남 민주화운동, 미얀마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불교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불교라면 명상을 하는 종교로만 이해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중들에게 불교가 얼마나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인가를 알게 하였다.

강연 후에 이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등 매우 열띤 분위기였다. “한국의 정치변화와 불교” 강연에서는 ‘한국사회가 어떻게 민주화되었으며, 그 이후의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또 ‘새로운 정치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이 무엇인가’ 등을 김종인 교수의 개인적인 정치적 체험을 곁들여 이야기하여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강연 외에도 김종인 교수는 부총장과 학과 교수들과 오찬, 만찬을 하면서 향후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인터넷
TV

우리불교 W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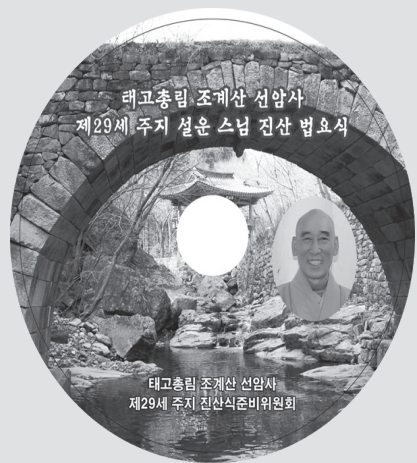
"촬영합니다"

촬영영상은 우리불교신문
W-TV(wooribulgyo.com)

및 daum.net(다음)
포털사이트에서

평생 보실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CD · DVD로
염가제작해 드립니다



순천 선암사 주지 진산식을 촬영한 후
본사가 제작해 납품한 CD및 DVD (02) 735-2240 / 010-2714-5831
모습

www.mindplusbook.com

생각 더하기

TEL 02-735-2240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 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준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필·윤문작가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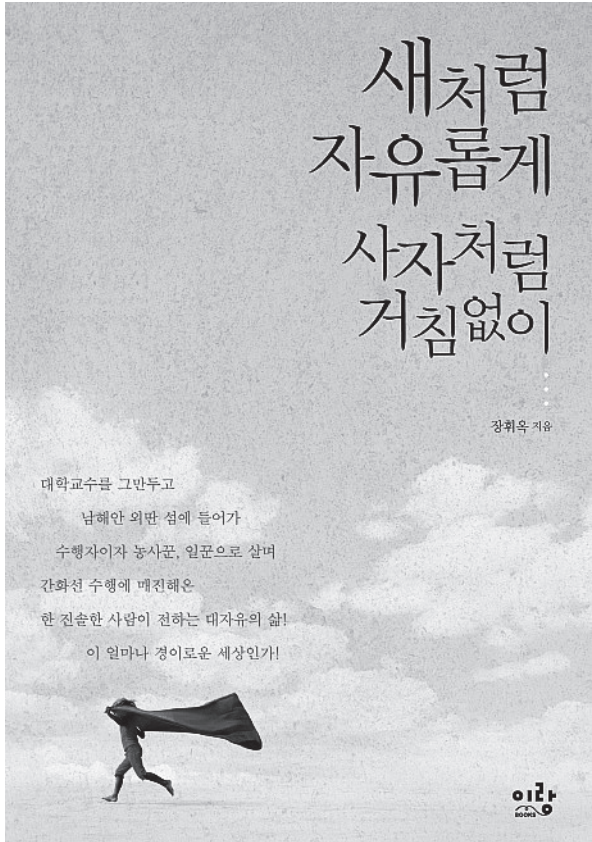
3. 법보시용 서적 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불가집, 각종 경전류 및 시집, 수필집.





불교 학자에서 간화선 수행자가 되기까지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



배낭여행 갔을 때 5인실에 묶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묶던 방에 장기 여행자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너무 낡아서 버릴 거라고 하니 그녀는 버릴 거면 자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막상 버리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달라고 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은 좀 쓸 만 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털너털한 헌 신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나의 집착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내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인지 난 ‘버릴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 무한한 존경심을 갖는 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라는 책을 쓴 장휘옥 씨는 위대해 보이고 또한 부러웠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새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동경대학에서 화엄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저자는 10여 년 전 홀연히 교수직을 버리고 남해안 외딴 섬 오곡도라는 곳으로 들어가 간화선 수행에 전념 하고 있습니다.

전도유망한 학자로서의 삶을 하루아침에 헌신 짝 버리듯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유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불교를 배우면 새처럼 자유로워질 줄 알고 열심히 교학에 전념해 왔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 다. 교학은 사과 맛에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사과 맛을 보려면 설명만 읽어서는 안 되고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교학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고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불교 교리가 내 영혼의 첫 번째 길잡이가 되었다면, 간화선 수행은 내 영혼의 눈을 뜨우고 삶을 변화시킨 두 번째 길동무이다. 오곡도 수련원에 정착한 뒤 나는 수행자이자, 농사짓고 건물 보수하고 집 나르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 매사를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여 행동하며 살고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겨를이 없다. 글 서두에서 이야기한 비온 뒤 대나무밭의 경이로운 세계를 나는 보고 산다. 마음만 바꾼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머릿글에서)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는 한 자유로운 영혼의 거침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은 먼저 저자가 불교에 입문해서 교수가 되고 오곡도 수련원에서 수행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감동 있게 읽었던 전위 무용가 홍신자 씨의 인생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히스토리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돈이나 명예를 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아서 살아가는 삶의 청명함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데서 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부는 오곡도 수련원에서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를 통해 현대인에게 적당한 교훈을 던져주고, 간화선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선적인 삶의 지침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등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심각한 불안장애를 겪었던 저자는 결립 없는 자유를 삶의 최대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빠져진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처럼 불안을 경험했던 저자에게는 편안한 마음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먼 길을 돌아 정말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삶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최고 가치로 삼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휘옥/ 도서출판 이랑/ 15000

2014 불교중앙박물관 상설전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스님)은 새로운 유물과 주제로 2014년 상설전을 2월 19일부터 개최 하였다. 5월 31일까지 전시 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경상북도 군위에 위치한 인각사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인각사의 창건’을 주제로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었다. 제2전시실은 신앙의 힘으로 창조된 다양한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불교미술품들이 전시된다. 제3전시실은 ‘일제강점기의 불교와 조계사 대웅전의 건립’을 주제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상량유물들이 선보인다. 전시유물은 보물 5건을 포함한 총 92건 277점이며, 2013년에 전시되었던 인각사의 통일신라시대 불교금속공예품 및 주요 발굴 유물들이 다시 한번 전시되며, 선암사 성보박물관 소장 보물 제 1553호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가 전시됩니다.

미리보는 전시실

제1전시실- 인각사의 창건

제1전시실은 경상북도 군위에 위치한 인각사의 발굴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였으며, 총 55건 125점의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각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삼국유사』를 집필하신 일연스님이 주석하시며 넓은 사역을 지닌 사찰이었으나 조선시대 송유역불정책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이후 본

격적인 발굴로 인각사의 사역이 복원되고 있다. 작년 11월의 기획특별전이었던 ‘인각사와 삼국유사’ 전시를 압축적으로 전시하였으며, 인각사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각사 출토 불교금속공예품은 9세기 무렵의 것으로 1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인각사에서 출토된 중요 유물인 불교금속공예품들과 주요 발굴유물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2전시실- 신앙의 힘으로 창조한 불교미술

제2전시실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공간을 장엄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교미술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범당 내부를 장엄한 불화와 범종·향완·사리장엄구 등 여러 불교공예품들을 전시실로 옮겨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다양한 불교미술품 중에서도 선암사 성보박물관에서 출품된 7건 7점의 불교미술품들이 특히 주목된다. 조선 후기 1736년에 제작된 선암사 서부도암 감로왕도는 조선 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18세기 감로왕도 최전성기의 전형을 이루는 작품이다. 또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승인 의겸스님이 제작한 불화로 전성기의 의겸스님의 화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선암사 동종은 조선 후기인 1657년에 제작된 것

로 본래 보성군 대원사 부도암의 종으로 주조된 것이다. 이 종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주종장인 김용암金龍岩이 제작한 것으로 17세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동종이다.

제3전시실 - 일제강점기의 불교와 조계사 대웅전의 건립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각황사覺皇寺로 사대문 안 최초의 사찰로 창건되었다. 1938년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세우기 위하여 총본산으로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을 설립하고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북한산 태고사太古寺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태고사로 명명 한 뒤, 1954년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지금의 조계사曹溪寺로 명명하였다. 191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불교 중심에 있는 조계사는 창건 과정에서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되살리려는 치열한 운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조계사 대웅전의 건립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자주적인 한국불교를 세우고자 했던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1938년 조계사 대웅전이 건립 되었을 당시 납입되었던 상량유물이 전시됩니다. 이 상량유물들은 일제강점기 불교의 상황 뿐 아니라 당시의 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총 18건 112점의 유물이 전시됩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 하동길

상담전화 02.596.4600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 충지중 교도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 불교충지중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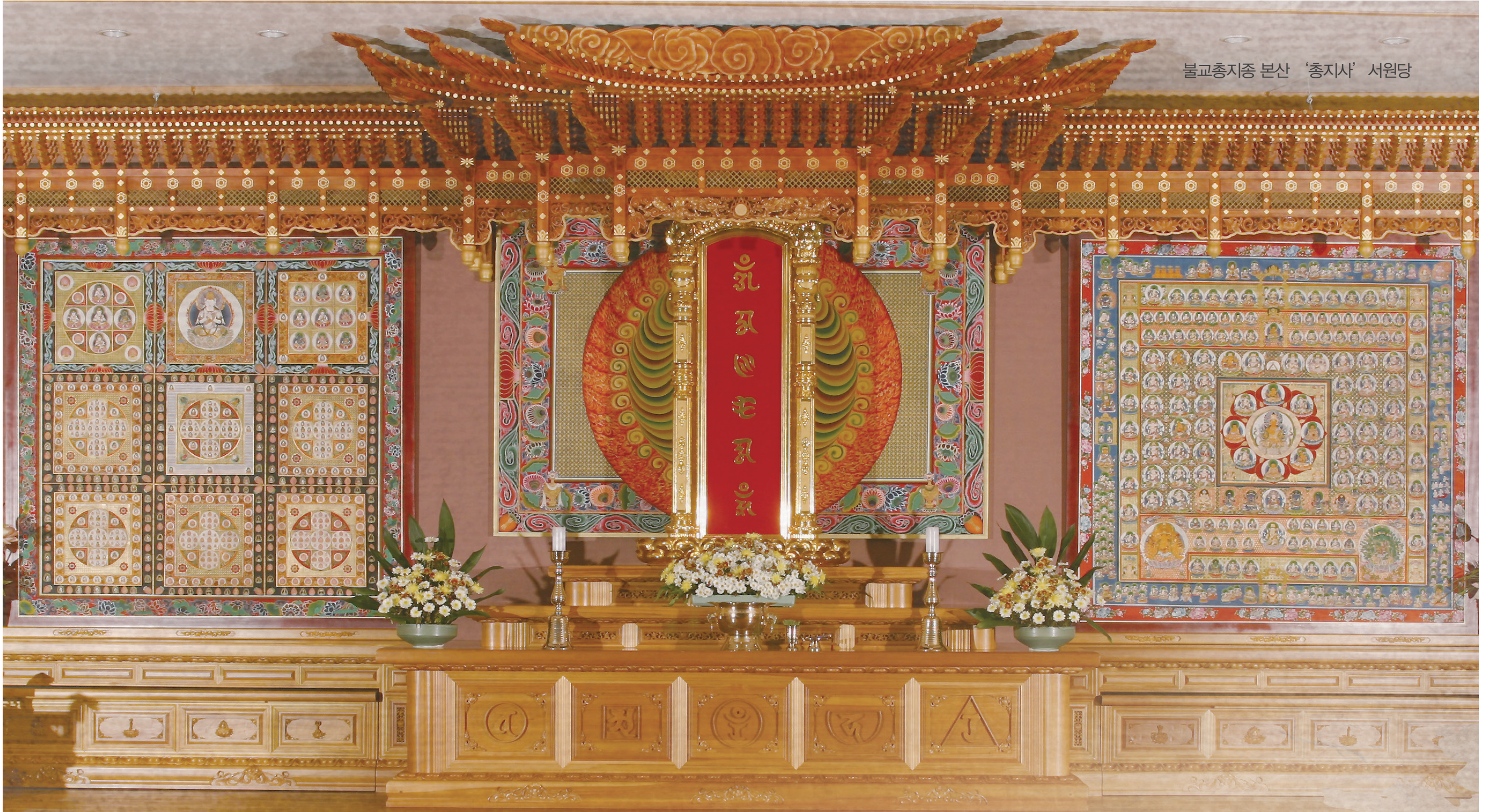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유니온빌딩 6층

▶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 상담전화 02.967.2228



불교충지종 본산 '충지사' 서원당



불교충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충지종.
진언밀교 충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자성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충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www.chongji.or.kr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3년
2014년 3월 5일
음력 2월 5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8년 제172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에 총지중 법등 통리원장 선출 2월 20일 제34차 정기총회 봉행



▲ 제 34차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 정기총회 / 사무총장 당선소감을 말하는 법등 통리원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는 2월 20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공석인 이사장에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사무총장에 총지중 통리원장 법등 정사를 선출했다. 부이사장인 홍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과 감사인 보문종 기획실장 급주 스님, 손안식 중앙신도회 지도위원은 유임됐다.

총회는 이어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보다 1억2천700만 원이 증가한 5억8천4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6월 9~12일, 일본 규슈), 제9차

무차만발공양(4월 27일·부산), 제9차 여성교류대회(4월·일본 가마쿠라), 제10차 여성교류대회(10월·한국), 문화재 환수·위령사업 등이다.



▲ 불기 2558년 연등회 공식포스터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총기43년 상반기 49일 불공 입제 부산정각사 공공서원으로 부산 외대 참사자 영식왕생성불 채택

불교총지중은 2월 19일 전국 사원에서 총기 43년 상반기 49일 불공에 들어갔다.

총본산 총지사(주교 법등정사)와 전국 사원은 총기43년 상반기 49일 불공에 스승과 교도 모두가 진호국가불사와 자녀 잘되기 서원으로 입제했다. 총지사 주교 법등정사는 설법을 통해 “전반기 49일 불공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녀 잘되기 불공을 병행해야 된다.』며 원정 대성사께서 제정하신 총지중의 특별기도 중의 하나입니다. 총지중의 모든 스승과 교도가 49일 동안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또한 수행 기간 중에는 계율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정진에 방해가 되는 장소의 출입을 삼가하고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다 같이 서로를 경책하며 불공에 임합니다.”며 입제에 드는 교도들을 격려했다. 49일간의 정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와 자성(自省)의 시간을 되가 바란다.

부산 정각사(주교 특경 정사)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중 참사를 당한 부산 외국어대학교

부산 학생들의 병고 소멸과 사망 학생들의 영가 천도와 극락왕생을 위해 49일간 공공서원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각사 구분정 보살, 각자님의 병고해탈을 위한 서원도 일주일간 시행했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옴흠야호사”이다. 이 진언불사 출처는 종조 원정 대성사가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의계의 정립은 총기8년(1979년) 4월 26일 춘계강공회에서 제정되었지만, 이미 1975년부터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시행했었다. 내용은 나라발전, 국민안락,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이 호국 불사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행한다. 또한 총기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손 불공이 시작되었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4월 8일(양력)에 회향된다. 회향일의 의미는 부처님오신날이 음력 4월 8일이지만, 종단은 이를 양력으로 시행한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부산=이상록 통신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및 불기 2558년 제1차 이사회 사무총장 3년단임 등 정관 개정



▲ 제50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정기총회 입제식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스님)가 총지중 법등 통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태고종 도산 총무원장, 천태종 도정 총무원장 등 회원종단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0일 오전 11시 AW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정기총회 및 불기 2558년(2014)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 감사(이상 3년단임)의 임기를 규정하는 등 정관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은 부회장과 사무총장 관련 규정 신설(제3장

임원), 의결정족수 관련 문구(제4장 총회), 정족수 관련 문구 수정(제5장 이사회), 사무처에 대한 규정 명시 및 구성인력에 대한 명칭 수정(제7장 사무처), 신규 회원종단 가입규정 신설, 법인단체규정 통일(정관 시행세칙) 등이다. 상임이사 기준과 종단 의전순위 관련 조항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어 불기 2557(2013)년도 결산을 의결하는 한편 신입 이사에 미륵종 총무원장 덕운 스님을 선출했다. 감사(3인)와 사무총장 선출 건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각 종단 스님(정사)연수교육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공주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연다. 교육은 첫째 날 오후 2시 30분 입제식에 이어 김종명 교수의 '신도상담과 소통의 리더십' 강의를 비롯해 이상근 회계사의 '사찰세무', 김이곤 U-클래식 대표의 '스피치교육', 법안(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스님의 '한국종교계 현황과 과제', 홍세화씨의 '오늘의 한국사회를 말한다'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한국) 예비회의는 3월 25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회일정과 주제, 공동선언문, 국제학술강연회, 한중수행체험 중국대회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밖에 올해 봉축행사 봉행의 건 등을 심의했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사이에 있는 초록 어린이집은 설레는 마음으로 4월에 42명의 초록 친구들과 원장님, 5명의 교사들이 함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원훈처럼 건강한 어린이, 지혜로운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초록 어린이집에는 제일 막내인 귀염둥이 초록반 친구들, 어린 꿈을 키워나가는 새싹 같은 정진반 친구들과 매일 매일 샘솟는 사랑과 서로 아껴주는 예쁜 마음이 가득한 진리반 친구들 그리고 가장 큰 형님이요 백가지 상상과 천가지 꿈을 가진 지혜반 친구들이 있습니다....(생략)”

- <위드드라마> 2013년 1월호 중에서 -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원동로 590길 83 리얼파크 8단지 아파트 1층
문의. 02-445-2326

제 4 4 회 동 해 중 졸 업 식 봉 행

첨단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 하기를



▲ 제 44회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

총기43년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이 2월 12일 오전 10시30분이 해오름관에서 봉행되었다. 졸업식에는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 정사, 인선 총무부장, 범선 학교법인 사무국장, 변 혁 총동창회 사무국장, 한기홍 사무차장, 지미희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내빈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3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은 예전의 방식과는 달리 졸업생들이 제작한 동영상 상영을 통해 3년간의 추억을 회상하였다. 특히 졸업생 전원이 단상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 받고, 이사장 지성 정사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회고사를 통해 “과학교에 3명 국제고, 외국어 고1 명등 다양한 학교에 진학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사장 지성정사는 축사를 통해 “졸업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온 세계를 무대로 하여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IT지식, 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세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과 자세를 기를 때입니다.”며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불교총지중 장학금 및 총 27명의 졸업생에게 동창회 장학금 등이 수여되었다.

동해중 = 탁상달 교감

국군불교 총신도회

창립 제14주년

기념 대법회 봉행



▲ 제 14주년 국군 불교총신도회 창립 기념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현집 장군)는 2월 21일 오후6시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창립 제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군불자의 신심 증장과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법회에는 초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한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스님과 포교원장 지원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 총지중 통리원장 범등정사,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장, 조남진 국군예비역불자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 감사, 최상화 청불회 부회장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는 1971년부터 1972년 사이 결성된 육.해.공. 국방부 불교신도회를 모체로 지난 2000년 2월25일 전군 전현직 군불자와 가족들이 ‘전 장병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포교하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군불교신행단체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헌화, 유공자 포상, 대화사, 축사, 법어, 발원문, 군불총 추진경과 및 발전방향 보고, 축가, 축하 시루떡 나눔, 축배,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유공자 포상 및 감사패 수여를 배종영 해군 준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오명호 육군 대령과 김경구 육군 중령, 이상운 공군 준위가 포교원장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총14명의 군불자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김현집 군불총 회장은 봉행사에서 “군불총은 위국헌신의 군인정신과 위법망구의 불자정신을 근간으로 불심 증장과 호국불교의 계승 등 군불교 발전을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심을 복돋우고 불자 상호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군불교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은 “140여 명의 군법사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 전군의 군불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군종교구는 군불총과 군법사간의 확고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육군회관=김종열 기자



▲ 총기 42년 종단 정기감사 평가회

총기42년 총지중 종단 정기감사 2월 26-27일 양일간 통리원에서

불교총지중 사감원(원장 범상인)은 총기 42년 종단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에는 범상인 사감원장과 사감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총기42년 통리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범장원, 밀교연구소가 진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위원들은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 물자 구매계약의 적정성, 인사처리, 종무원 복지실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하였다. 감사결과는 다음 중앙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통리원=장동욱 계장

종단협 · 한국불교지도자 미안마 방문

유네스코 지정 바간지역 현지 답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회원 종단 지도자 스님들이 미얀마를 방문하고 양국 불교 교류 강화를 다짐했다.

종단협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얀마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중 통리원장 범등 정사를 비롯한 종단 수장 스님들이 참석해 아웅산 폭파사건 현장인 아웅산 기념탑과 쉼대 파고다, 세계 최대 옥불이 모셔진 로카 찬다 옥불사, 황금대탑 쉼대곤 파고다 등을 참배

했다. 또한 유네 스코가 지정한 세계 3대 불교유적지 중 하나인 바간 지역을 한국불교 지도자스님들이 직접 방문했다.

11~14세기 미얀마 첫 통일왕국의 수도였던 바간에는 5천여 개의 사원과 탑들이 있었지만, 몽골의 침입과 1975년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돼 지금은 약 2천 300여개의 사원과 탑들이 보존되어 있다.

이번 순례로 바간 지역 불교유산 복원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계기되었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부처님의 복밭(福田)도 중생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 즉,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선(善)이 좋은 줄 알면서 실천 하지 않고, 악(惡)이 나쁜 줄 알면서도 제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연히 돌아오는 복락은 받으면서, 우연히 들어오는 괴로움과 고통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저질러 놓은 것인데도 남을 원망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빛은 안 갚을 수도 있지만, 진리에 대한 빛은 영원히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문수보살이 목수(目首)보살에게 물었다 “중생들 가운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지혜가 많은 이도 있고, 적은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래는 평등해서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차별을 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목수보살이 대답하였다.

“대지는 하나이어서 차별이 없지만 온갖 싹을 틔게 합니다. 부처님의 복전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릅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부처님의 복전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이들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같은 재료라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는 각자가 해보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는 습성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전생도 포함하지만 어제까지 지어온 것의 결과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전과 설법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선을 실천하고 복덕을 쌓아야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실천입니다. 실천은 어디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교도 여러분

옛날 ‘배후’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배탁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자 형제가 외삼촌댁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 높은 일행(一行)이라는 스님이 외삼촌댁을 방문케 되었고, 그들 형제를 유심히 보던 스님이 외삼촌과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요?”

“조카들인데 부모가 일찍 죽어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내보내시오.”

“내보내다니요?”

“저 아이들 관상(觀相)이 거지될 상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저 아이들로 말미암아 이 집안은 물론 삼이웃이 망하게 됩니다. 애당초 그렇게 되기 전에 내보내시오.”

“그렇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사람은 자기의 복대로 살아야 하는 법, 이 집이 망한다면 그 애들의 업(業)은 더욱 깊어질 것이요.”

밖에서 대화를 엿들은 배후는 스님이 돌아간 뒤 외삼촌께 말하였다.

“외삼촌, 저희 형제는 집을 떠나겠습니까?”

“떠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아까 일행 스님과 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빌어먹을 팔자라면 일찍 빌어먹을 일이지, 외삼촌 집안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떠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만류하는 외삼촌을 뿌리치고 동생과 함께 집을 나온 형제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거지 행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구걸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령도 편안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산으로 들어가 숲을 구워 팔면서 공부도 하고 무술도 익히자.”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 숲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검술도 익혔다. 그리고 숲은 필요한 식량을 구할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다발다발 묶어 단정한 글씨로 쓴 편지와 함께 어렵게 사는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다.

“이 숲은 저희들이 정성들여 구운 것입니다.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쓰십시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 꾸준히 숲을 나누어주자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들의 진심어린 아름다움 마음씨에 감사하게 되고, 이들 형제에 대한 소문은 이웃마을에까지 퍼져 나가 외삼촌 귀에도 들렸다. 그리하여 외삼촌이 찾아와서 ‘잠깐이라도 좋으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청하게 된다. 마지못해 외삼촌을 따라 집에 이르자 때마침 외삼촌댁에서 나오게 된 인연을 만든 스님과 조우하게 되는데, 배후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애야, 너는 정승이 되겠구나!”

“스님, 예전에는 저희 형제가 빌어먹을 상이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어찌 정승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거짓말 마십시오.”

“전날에는 네 얼굴에 거지팔자가 가득 붙었더니 오늘은 정승의 심상(心相)이 보이는구나.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을 하였느냐?”

배후와 배탁이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얘기하자 스님은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의 마음가짐과 생활이 거지팔자를 정승팔자로 바꿔 놓았구나.”

그 뒤 배후는 정승이 되었고, 동생 배탁은 대장군의 벼슬을

마 다 하고 뱃사공이 되어 오가는 사람들을 건네 주며 고매하게 살았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은 인과 응보로 팔자와 복덕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스스로 복을 지으면 좋은 공덕을 받고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자신이 지은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중 남에게 베푸는 보시는 무상의 보시가 최고입니다. 베풀고 나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보시했다는 것조차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중생은 보시에 있어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잠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회사(喜事)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서 행복한 무주상의 보시가 말로 최고의 공덕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독 중 탐심이 가장 먼저 와 있는 이유이지요. 탐욕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가 어디에서 옵니까? 모든 것이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버리고 참다운 공덕을 쌓아간다면 부처님의 인과법은 그대로 돌아 여러분들에게 복덕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합시다.



기로스승
지공 정사

불교 오피니언 칼럼

누구나 살아갈 가치가 있는 생명이다.

요즘은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생활고와 병마와 싸우던 불우한 이웃들의 죽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 2월의 마지막 날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세 들어 살던 박 모 여인과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창문을 청타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 되었다. 몇 년 전 남편을 간암으로 먼저 보내고,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큰 딸은 만성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딸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신용 불량 상태로 올바른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는 한다.

최근 박 씨의 팔 부상으로 식당 일마저도 하지 못했다는 한다.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이 있는 후 파포의 한 주택에서는 홀로 사는 60대 노인이 현금 100만원을 남기고, 자신을 화장해 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고독사(孤獨死) 했다. 관할 당국에서는 이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언론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니, 일인 가구의 증가니 하는 원인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기관들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요란한 나팔만 불고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들은 왜 이런 고독한 죽음을 선택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부재라고 필자는 본다. 요즘에는 이웃 간의

소통이 없다. 고도의 산업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대외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전에 있던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저 연말 만 되면 자신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삼고 싶어 거리의 모금함이나 전화기의 ARS 버튼을 누를 뿐이다.

최근 불교계는 사회복지를 최고의 이슈로 삼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구제에 있기 때문이다. 총지종에서도 사회복지재단을 통한 불우 이웃 긴급 생활자금 지원과 자비의 쌀 나누기 운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의 주요 중무 과제 중의 하나가 “교도노후복지”시설 건립을 들고 있다.

이번에 건립계획을 발표한 부산과 성남의 시설은 지역 교구의 보살님들을 위한 시설로, 진언 수행으로 즉신성불을

이루고자하는 교도들의 오랜 염원을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룬 결과다. 총지종의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불교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기를 염원한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 이웃을 살피고, 무주상 보시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관세음보살의 가지로 보일 것이다. 이는 좋은 선근을 심는 종자로 가난과 고독의 긴 싸움을 하는 이에게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생들은 모두가 자애로운 부처님의 자식이다. 유정, 무정의 중생으로 가리지 말고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이 조금이라도 퍼졌으면 한다.

우리불교신문 편집국장 김원우

- 교훈 : 신의·성실·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충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삼국유사에서 본 밀교승(密敎僧)

1. 신라 혜통국사

이 땅에 밀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신라의 혜통국사가 당나라 무외삼장 법사로부터 밀법을 수지하고 귀국하면서 부터이다. 무외(無畏)법사는 범어 슈바카라 싱하를 번역한 이름으로, 중국에서 역경승으로 활동한 중천축국(中天竺國) 출신의 학승이다. 감로반왕(甘露飯王)의 후예인 불수왕(佛手王)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13세에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형제들이 난을 일으켜 곧 왕위를 버리고 나란다사로 가서 달마국다(達摩摩多)로부터 밀교를 배우고 그 밀법의 요체를 터득하여 그 이름을 알렸다. 범본의 불전들을 갖고 카슈미르, 우디아나, 티베트를 거쳐 716년에 중국의 장안(長安)에 도착했다. 당 나라 玄宗의 환대를 받고 흥복사와 서명사에 머물다가 보리원(菩提院)으로 옮겨 역경에 전념했다. 금강지(金剛智)와 함께 중국 밀교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735년에 입적했다.

무외법사의 수제자인 혜통에 관한 삼국유사의 기사는 권제5 제6 신주편 혜통항룡조에 스님의 출가부터 입당구법, 귀국후의 활동들이 자세히 나온다.



▲ 삼국유사 고려대학교 소장본

버리고 중이 되어 이름을 혜통으로 바꿨다. 권제5 제6 신주편 혜통항룡조 "수달을 죽이고 출가하다."

삼국유사는 혜통의 출생과 출가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다. 스님은 수달 한 마리를 우연히 잡아 가죽은 벗기고 뼈를 물었다. 수달은 죽어 가죽이 없어 뼈만이라도 자신의 자식들을 찾아가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생명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한다. 스님은 한참을 고민 끝에 자신의 백의(속인)를 벗고 출가하기에 이른다. 중생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밀승으로의 각오가 보이는 부분이다.

입당구법의 길

「당나라에 가서 무외삼장(無畏三藏)을 뵈고 배우기를 청하니 삼장이, "우이(우夷)의 사람이

어떻게 법기(法器)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혜통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 3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섬겼다. 그래도 무외(無畏)가 허락하지 않자 혜통은 이에 분하고 애가 타서 뜰에서 불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조금 후에 정수리가 터지는데 소리가 천둥과 같았다. 삼장(三藏)이 이 소리를 듣고 와서 보더니 불동이를 치우고 손가락으로 터진 곳을 만지면서 신주(神呪)를 외니 상처는 이내 아물어서 전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흥터가 생겨 왕자(王字) 무늬와 같으므로 왕화상(王和尚)이라고 하여 그의 인품을 깊이 인정하여 인결(印訣)을 전했다.」

권제5 제6 신주편 혜통항룡조 "당으로 유학하여 무외삼장에 배우다"

출가 후 혜통스님은 당으로 유학을 떠난다. 당시

품문으로만 들어오던 밀교를 배우기 위해서다. 당나라 수도 장안에는 많은 서역승들이 들어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번역하고, 밀법을 전수했다. 스님의 스승인 무외삼장법사는 중천축국 왕자 출신으로 나란다에서 밀법을 전수 받고 티베트를 거쳐 중국으로 온 학승이다. 변방의 오랑캐 나라에서 온 승려에게 자신의 법을 전 수 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돌아선다. 스님은 삼년이라는 시간을 정성으로 스승을 모셔 마침내 관문을 통과 한 것으로 보인다. 밀법을 전수 받은 혜통스님은 스승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스승의 명으로 당나라 공주의 병을 치료한다.

스승으로부터 인정받고
당나라 공주의 병을 고치다.

「이때 당나라 왕실에서는 공주가 병이 있어 고종(高宗)은 삼장에게 치료해 달라고 청하자 삼장은 자기 대신 혜통을 천거했다. 혜통이 가르침을 받고 뜰 밖에 거처하면서 흰 콩 한 말을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니, 그 콩이 변해서 흰 갑옷을 입은 신병(新兵)이 되어 병마(病魔)들을 쫓았으나 이기지 못했다. 이에 다시 검은 콩 한 말을 금그릇에 넣고 주문을 외니, 콩이 변해서 검은 갑옷 입은 신병(新兵)이 되었다. 두 빛의 신병이 함께 병마를 쫓으니 갑자기 교룡(蛟龍)이 나와 달아나고 공주의 병이 나았다.」

권제5 제6 신주편 혜통항룡조 "당 고종의 공주의 병을 고치다."

무외삼장법사로부터 밀법을 전수 받은 스님은 당나라 왕실의 치병 구제에 스승을 대신해서 불공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공주의 몸에서 해악을 끼치던 교룡은 신라로 와 문익립에 와서 인명을 해치는 등 해악을 끼친다. 혜통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스승에게 하직하고귀국길 오른다.

다음호에 계속

*자료출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 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3/ 명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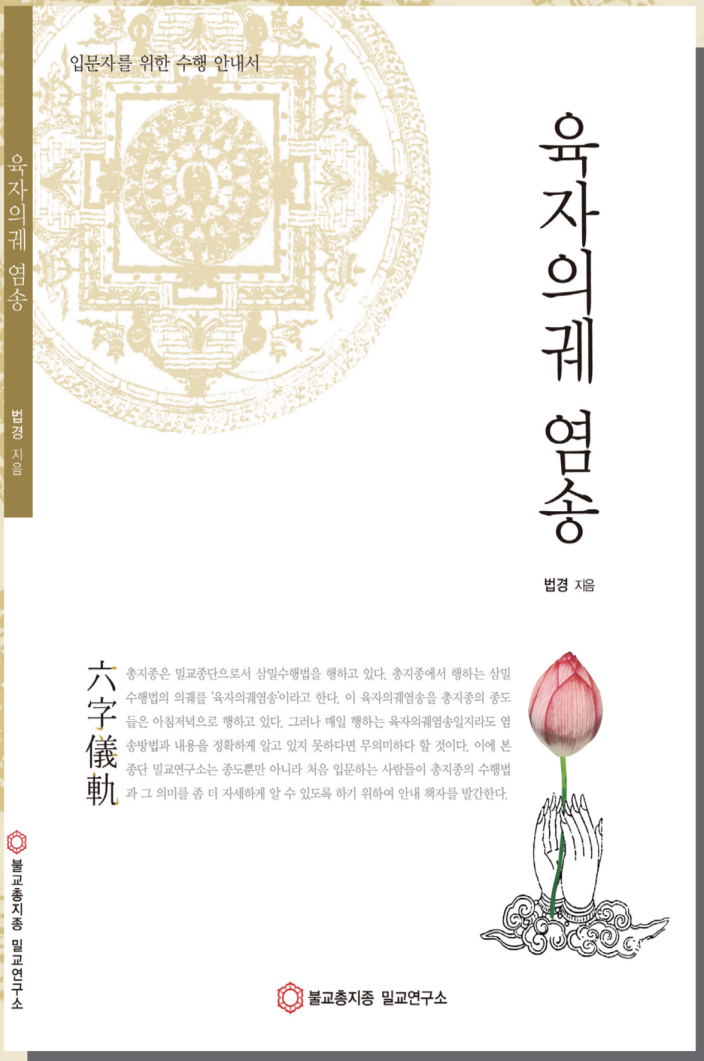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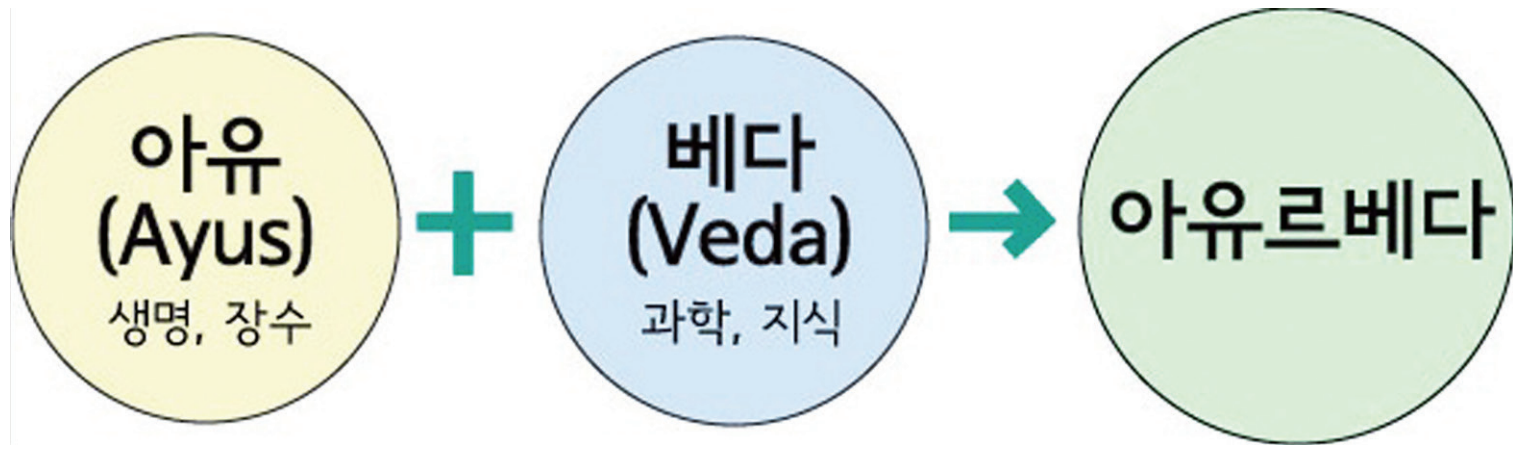
본 책자는 ‘육자의궤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싣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건강 특집

자연의 발상으로 인체를 보는 인도 전통 의학 「아유르베다」



오늘날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체세포 복제를 통한 줄기세포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단계에 까지 와 있다. 유전자 지도인 ‘게놈’은 이미 2001년 3월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전히 밝혀냈다. 세포의 구성까지 완전히 찾아낸 과학자들은 유전 질환등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인류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의 대부분은 손상된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재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기를 복제해 기능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대 서양의학은 병의 부위를 제거하거나 병소를 다른 약품과 항생제로 죽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동양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음과 양, 오행을 기본으로 인체를 파악한다. 인간의

병을 신체의 균형이 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고 맞추어 치료를 한다. 암에 대한 인식도 서양과 동양의학의 차이는 크다. 서양의학은 암을 외부의 자극으로 인한 세포의 돌연변이로 보고 이를 파괴하거나 제거하여 치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습기나, 열이 강하게 한곳에 뭉쳐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치료역시 이를 균형있게 해주는 것으로 근간을 삼고 있다.

‘균형을 강조하는 아유르베다

최근 한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 「아유르 베다」는 우주와 인간을 상호 연관 지어 고찰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이다.

아유르베다(Ayurveda)란 말은 ‘생활의 과학’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유(Ayu)는 ‘삶’ 또는 ‘일상생활’을 의미하며, 베다(Veda)는 ‘앎’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진 베다(Veda)에 맨 처음 기록되었으며, 인도에서 5천년 이상 동안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어 왔다.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으로 서양의학이 밀려들어오면서 잠시 주춤 했지만, 지금도 활발히 사용되는 전통의학이다. 물론 인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유르베다 병원이 있고, 이곳에서 대학교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 만이 공식적인 전통의학 의사로 활동 할 수 있다.

아유르베다의 핵심은 한 마디로 ‘균형’이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기운의 상호 균형이 깨졌거나, 또는 개인과 자연환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질병 및 건강상의 문제는 신체의 근원적인 힘들의 불균형과 자연과의 부조화로 생긴다. 불균형,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기 위해 맥박, 혀, 얼굴, 눈, 손톱, 입술, 그리고 몸의 아홉가지 문(눈, 귀, 콧구멍, 입, 생식기, 항문)을 면밀히 관찰한다.

인체는 소우주.
질서는 건강. 무질서는 병

아유르베다가 표방하는 철학은 우리나라 한의학과도 공통점이 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한의학의 오행에는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아유르베다에는 에테르(공허), 공기, 불, 물, 흙의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이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분류하는데, 아유르베다에서는 비타(Vita, 공기와 허공), 피타(Pitta, 불과 물), 카파(Kapha, 물과 흙)의



세 가지 체질로 구분한다. 이러한 체질을 아유르 베다에서는 도샤(Doshas, 원천적인 생명력)라고 부른다. 도샤의 균형을 통해 신체 여러 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할 뿐 아니라, 사람이 우주의 환경과 결합된다고 본다. 개인은 하나의 도샤에 주로 지배되지만, 나머지 도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유르베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건강을 조절한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생활의 과학’으로도 볼 수 있다.

요즈음 아유르베다의 이론을 근거로 건강 식품을 많이 팔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인된 의사나 요법사는 없다. 제도화된 의학인 서양의학과 한의학 이외에는 모두가 대체의학 혹은 대체요법으로 불릴 뿐이다. 이 또한 의료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차 의과대학 통합의학대학원장인 전세일 박사가 원하는 아유르베다 섭생법의 일부를 소개한다. 한 두가지 만 주의하면 하면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니 교도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한다.

자유기고가 손월아

- 해 뜨기 전에 일어난다.
- 태양 광선을 바라본다(직접 보지않고 광선을 쏘이자).
- 눈을 뜬 뒤 방광과 창자를 비운다.
- 식사는 천천히 한다.
- 육체에 신선한 감각을 주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한다.
- 아침 또는 저녁에 호흡훈련을 하면 몸과 마음이 신선해진다.
- 8시 이전에 아침을 먹는다.
-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다.
- 식사 뒤 15분간은 가벼운 산보를 한다.
- 음식에 대해 느껴 가면서 식사를 하고, 식사 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 매일 손가락에 참기름을 묻혀 잇몸을 마사지한다.
- 체내의 독소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단식을 한다.
- 밤 10시 이전에 잔다.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 층 문의. 02-445-2326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만다라 이야기(1)

“총지종과 만다라”

한국밀교를 대표하는 총지종은 밀교종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양부 만다라’를 봉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다라 봉안은 총지종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종 당시부터 총지종은 만다라를 중요한 교의(敎儀)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창종 이후 30여년이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부만다라를 봉안하였는데, 밀교의 양부만다라의 봉안은 한국불교계에 총지종이 유일하며, 총본산 총지사에 처음 봉안한 이래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원에 봉안한 상태다.

이에 총지종보는 진언행자들에게 만다라의 기초지식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깊은 이해와 더 높은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연재를 시작한다.

먼저 총지종과 만다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부 만다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총본산 총지사 본존

총지종은 2003년부터 만다라를 본격적으로 봉안하였지만 창종 당시부터 만다라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여러 자료에서 보게 된다. 바로 총지종의 의례와 불사범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미 만다라를 채택하였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가 본존(本尊)에서 찾을 수 있다. 총지종의 본존으로 삼고 있는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훴’에서 바로 만다라의 봉안을 읽을 수 있다. 만다라에는 대만다라(大曼荼羅), 법만다라(法曼荼羅), 삼매야만다라(三昧耶曼荼羅),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훴’이 만다라(曼荼羅)라는 것이다. 네 가지 만다라 가운데 바로 법만다라(法曼荼羅)에 해당한다. 법만다라는 진언종자, 즉 문자로 그려진 만다라를 말하는데, 총지종의 본존(本尊)인 ‘옴마니반메훴’은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의 범서(梵書)로서 글자로 이루어진 문자만다라(文字曼荼羅), 종자만다라(種子曼荼羅)이다. 이 종자만다라가 곧 법만다라이다.

다시말해서 총지종의 육자진언은 본존(本尊)이면서 문자만다라(文字曼荼羅), 종자만다라(種子曼荼羅)의

법만다라(法曼荼羅)인 것이다. 육자진언의 본존이 곧 만다라이다. 본존에서 이미 만다라의 봉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만다라가 총지종과 무관하지 않음을 종조 원정 대성사의 법설(法說)을 집대성한 『종조법설집』에서 익히 알 수 있다. 31쪽~40쪽, 226쪽~227쪽, 231쪽 등에 설해진 종조님의 법설은 이미 만다라가 총지종의 중심 교의(敎儀)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법설(法說)의 일부를 살펴보자.

이 세상(현세現世)을 한마디로 표현(表現)하기는 극(極)히 곤란(困難)하다. 마찬가지로 ‘만다라(曼荼羅)’라고 하는 의미(意味)도 한마디로는 좀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반에게 알려지고 있는 의미는 인도(印度)의 산스크리트어의 ‘만다라’를 한음(漢音)으로 음역(音譯)한 것이 ‘만다라(曼荼羅)’라고 한다.

만다라는 무량(無量)한 복지(福智)의 공덕(功德)이 취집(聚集)되어 있다. 그리하여 신(身), 구(口), 의(意)의 삼밀(三密)이 원만(圓滿)하게 지배(支配)하고 있다. 즉 그 원만(圓滿)함을 우주간(宇宙間)의 신체상(身體上), 언어상(言語上), 정신상(精神上)의 모든 활동(活動), 다시 우주(宇宙) 그것의 경지(境地)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본질적(本質的)인 것을 의미하는 보리(菩提)는 대일여래(大日如來)의 경지(境地)다.

우주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의 구성구석까지 대일여래(大日如來)를 떠나서는 존재(存在)하지 못한다. 우주(宇宙)가 곧 대일여래의 자체(自體)인 것이다. 왜냐하면 대일여래의 삼밀(三密)은 삼세(三世-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十方(十方)에 편만(遍滿)하여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삼밀이 원만(圓滿)하다 함은 만다라에 무수(無數)한 불보살(佛菩薩)이 시현(示現)되어 있는 것이다.

만다라(曼荼羅)라고 하는 무대(舞臺)는 석존(釋尊)만이 깨달음의 경지(境地)에 들어가는 특정(特定)한 좁은 장소(場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種子-보리심)를 가지고 더욱 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인정(認定)하는 세계다.

만다라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불보살의 세계로서 무량(無量)한 복덕(福德)지혜(智慧)의 공덕(功德)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신성한 도량이다. 또 만다라는 불보살의 형상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신구의(身口意) 삼밀(三密)이 만다라라는 것이다.

이를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라 하는데, 제불보살(諸佛菩薩)의 위의동작(威儀動作)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처의 삼밀과 상응(相應)가치(加持)하여 즉신성불을

이루고자 하는 중생의 삼밀 또한 갈마만다라의 다름이 아니다. 이를 계승으로 설한 것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舉手動足 皆成密印 (거수동족 개성밀인)
開口發聲 悉是真言 (개구발성 실시진언)
起心動念 咸成妙觀 (기심동념 함성묘관)
손과 발의 움직임이 모두 다 밀인(密印)이고,
입을 열어 나는 소리 모두가 진언(眞言)이라.
한 생각 이는 마음 일체가 묘관(妙觀)일세.

밀인(密印)이 곧 신밀(身密)이오, 진언(眞言)이 구밀(口密)이며, 묘관(妙觀)이 의밀(意密)이다. 삼밀(三密)을 말하고 있다. 이 삼밀이 곧 만다라(曼荼羅)이다. 형상만이 만다라가 아니고 우리들의 입과 몸과 생각이 만다라(曼荼羅)이다. 진언행자의 위의(威儀)가 곧 갈마만다라(羯磨曼荼羅)이다. 그러므로 신구의를 잘 단속하여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총지종 만다라 관 도표

이 가운데 오불(五佛)은 총지종의 불사범요(佛事法要)에서도 그대로 칭명(稱名)되고 있다.

영식전도 불사범요의 ‘무상계승’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교 일반 제종(諸宗)에서 읊고 있는 무상계(無常戒) 가운데 일부를 채택하고 그 말미에 오불(五佛)을 가미한 것이 총지종의 ‘무상계’인데, 오불의 금강계만다라가 바로 법요(法要) 속에 녹아 있다.

- 귀명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 귀명 금강견교자성신 아촉불
- 귀명 공적장엄취신 보생불
- 귀명 수용지혜신 아미타불
- 귀명 작변화신 불공성취불

즉 종단의 불사범요와 의례 속에 만다라의 모든 세계가 그려져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교상과 사상을 살펴보건데 양부만다라의 봉안은 어찌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호에서 ‘만다라의 기초지식’을 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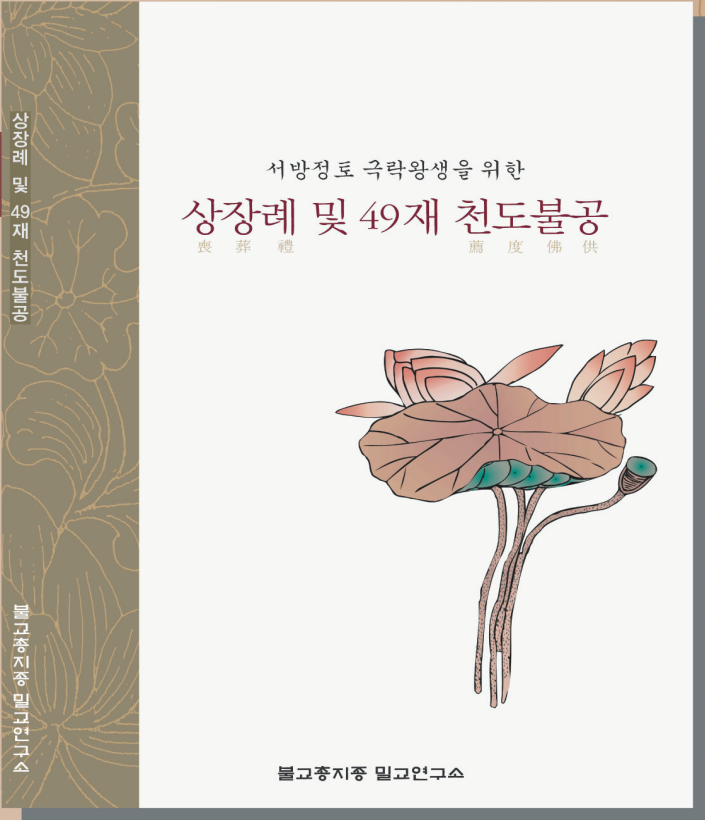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다시 **우리시조**
읽는

산은 길고 길고

지은이: 윤선도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외기러기 울고 울고 가느니

고산 윤선도의 '견희요'의 네 번째 시조입니다. 자기의 뜻으로 상소를 올리고 올바른 일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어 북녘으로 유배된 것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일로 아버지는 관직을 내려 놓아야 했습니다. 함경도는 산 넘어 산입니다. 고산은 첩첩이 둘러싸인 산을

바라 볼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운 정이 더욱 커져 갑니다.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 볼 때 지은이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께 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편집·정리 = 편집위원회

유 물 로 보 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436호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昌原 佛谷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불곡사
시대: 통일신라



▲ 제436호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850년에서 9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비로자나불 가운데 하나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양식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정수리 부분에 있는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는 크고 평평하다. 원만한 얼굴에는 눈·코·입 등이 알맞은 크기와 모습으로 배치되었다. 귀는 짧고 목에 있는 3개의 주름인 삼도(三道)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은 불상 전체에 걸쳐져 있고 옷주름은 다리까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흐르고 있다. 손모양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모습으로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불상이 앉아있는 대좌(臺座)는 8각형으로 연꽃무늬와 보살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불상은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의 많은 조성 예들과 함께 부석사 계통을 이루며, 당시 선종의 위세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제57화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홀라.kr>

악을 선행으로 소멸하는 자

악을 행하고 방치한 자

헛!

지저분한 곳이었는데 깨끗이 칠을했군.

흠마!

누가 이렇게 낙서하기 좋게 깨끗이 칠을 해놨지?

걸린다.

낙서하지 마시오!
-물카 작동중-

크!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작동이 되나?

걸린다.

낙서하지 마시오!
-물카 작동중-

물카 그림이 너무 엉성하잖아.

아이쿠! 더러워졌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그리려면 이 정도는 되어...악!

소 손이 붙어버렸어.

아냐! 그래도 사람이 양심 켜 살아야지.

깨끗이 칠해놓고 가야지.

지금까지 불교물카방송이었습니다!

양심 도망간 요즘 사회에서 보기드문 양심가를 발견했습니다.

상품이 정말 장난 아니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벽에 낙서를 하다가 119에 실려간 어느 양심불량을 만나 보았습니다.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3편업감연기편 p250 6



관세음보살
예찬문

관세음보살은 항상 자비하고 진한 자비로써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준다는 뜻에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며, 관세음보살의 간결한 소원을 이루어 주는 힘이 있다고 믿어진다. 이 책은 비로 보살이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기원과 성격을 다루고 있는 관세음보살론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중생구제를 구제하는 보살의 수호신.

화령 편역

불교총지중 법장원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권 이상)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고통과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음마니반떼흠의 의미와 수행법